

## 韓國目錄規則 3版의 編纂報告

——KCR3의 特性에 중심하여——

李 載 喆  
(圖協目錄分科委員長)

1950年代 초반기에 한국전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直導入된 美國式 라이브러리언쉽이 이땅의 圖書館學을 크게 振作시키고 도서관의 經營方法과 奉仕形態를 현대적으로 크게 改革시켜 그의 質量과 能率을 현저히 높여준 것은 사실이나, 분야에 따름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고유의 좋은 傳統과 特性을 잃게한 면이 있음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눈에 나타나는 바로, 미국식 라이브러리언쉽이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를 준 분야의 하나로 目錄分野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래 分類記入과 書名記入만 존재해오던 우리의 東書目錄分野에 著者記入을 한층 더 만들게 하여 主題와 書名으로 뿐 아니라 著者名으로도 檢索이 가능케 한 것은 확실히 미국식 라이브러리언쉽의 영향 덕택이다. 종래 막연히 이론만이 있었지 실제 작업으로 옮겨보지 못한 著者記入을 미국식 라이브러리언쉽을 통한 英美系目錄法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그 작성의 실현을 급속히 보게 된 것이다.

著者記入이 目錄記入의 한 종류로 하나 더 는 것은 확실히 잘된 일이다. 그러나 著者記入을 종래의 書名記入을 대신해서 영미계목록법과 같이 單一記入制目錄의 기본기입이나 複數記入制目錄의 유니트카드로 삼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 일부 目錄專門家들의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圖協은 國際的 추세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영미계목록법을 본받아 이른바 著者主記入의 목록규칙을 制定하여 퍼내기에 이르렀다. 본 韓國目錄規則의 1962년의 豫備版, 1964년의 1版(이하 KCR1이라 약칭함), 1966년의 修正版(이하 KCR2라 약칭함) 및 1970년의 修正版再刷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1960年 초기부터 일기시작한 目錄의 電算化작업은 絕對性이 없는 著者主記入法(영미계목록법에서 말하는 기본기입법)에 대해 西歐에서도 懷疑를 품고 異見을 제기하는 학자를 나오게 하더니 1970年代에 들어서서 마침내 基本記入의 標目없이 도 도서의 書誌的 識別이 가능한 目錄記入法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國際圖書館

協會聯盟(IFLA)이 제정해서 1974년에 펴낸 國際標準書誌記述法(ISBD, 이하 ISBD 라 약칭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도서의 제일가는 識別要素를 書名으로 삼고 항상 이를 記述의 맨머리에 적고 著者表示를 나중에 적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양의 전통적 書名主記入法과 일치하는 목록기입법으로 변한 셈이 되었다. 書名이 固有名詞로 굳어질 정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도서의 品名인 書名을 그 도서의 첫째가는 識別要素로 삼아 그것을 앞세워 기입하는 書名主記入法은, 目錄發達史上 著者主記入法보다 한 걸음 더 발달된 記入形態이며, 著作에의 直接接近策이란 점에서 目錄理論上 間接的으로 著者名을 한단계 거쳐서 著作에 接近하는 영미계 목록을 위시한 西歐의 著者主記入法보다 優位에 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재평가한다.

이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 書名主記入法에 대한 再評價와 국제적 目錄理論의 推移를 감안하여 이 KCR3은 우리의 전통적 書名主記入法과 흡사한 書誌記述을 유니트 카드로 삼아 목록기입을 하는 방식, 즉 도서식별의 구실을 하는 記述部와 검색의 구실을 하는 標目部를 자기 독립시키는 목록기입방식을 채용하였다. 이것이 KCR1과 KCR2에 비해 KCR3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또 KCR3이 KCR1과 KCR2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東書專門목록규칙에서 東書와 洋書共用的 목록규칙으로 된 점이다.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목록규칙을 二元的으로 채용하여 東書는 KCR을 적용하고 洋書는 AACR을 적용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KCR3은 東書와 洋書에 다같이 적용될 수 있게 그 조문과 예시를 다양하게 마련해 놓았다.

KCR3의 또다른 特異點은 ISBD의 句讀法을 채용한 점이다. KCR1과 KCR2와는 달리, 書名과 著者表示 사이를 구획하는데 사용되는 斜線(/)과 本書名과 對等書名 사이에 처지는 等號(=)와, 팔립자료표시 앞에 처지는 덧셈표(+), 기술의 사항과 사항 사이를 구획하는데 사용하는 마침표·빈칸·불일표·빈칸(. —)과 같은 구두법은 종전에 없었던 색다른 것들이다. 종전에 사용하던 구두점들도 그 용법이 상당히 달라진 바 있다.

KCR3의 「記述」와 「標目」에 대한 규정은 가급적 ISBD와 AACR2에 준거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나 東書와 洋書가 지니는 形態的, 言語的 構造의 特性과 價用을 존중하여 그에 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KCR1과 KCR2에서와는 달리 KCR3에서는 標目中서 韓國人名의 姓과 名 사이에 쉼표(,)를 찍지 않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그것은 한국 辭典界의 價用에 따르기 위함이다.

單一記入制目錄을 위한 標目選定을 KCR2나 AACR2와는 달리 유니트카드의 첫

머리 要素인 書名을 직접 標目으로 삼도록 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에 따라, 또는 서지의 성격에 따라, 著者主記入法을 채용할 수도 있게 別法을 마련해 놓기로 하였다. 그 別法은 대체로 AACR2에 준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目錄分科委員會會議錄을 보면 KCR3을 위한 작업은 KCR2가 간행된지 3년뒤인 1969년부터 착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동안 鄭駟謨(1969~1972), 張一世(1973~1974), 南承晷(1975~1976)의 순으로 위원장을 바뀌가며 이일을 진행해오다가 1977년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 목록위원회의 팀에게 그 사업이 넘어왔다. 그러나 그 결과를 검토하여보니 그동안 ISBD, AACR1의 제6장 개정판 등의 외국의 새로운 목록규칙의 출현이 있었는데 前위원들이 이룩한 결과에는 그의 반영이 된 것이어서 새 목록개정팀은 하는 수 없이 前委員들의 결과를 참고하되 새잡이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원들이 事項別로 분담하여 착수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도협월보, 제18권 제9호, 1977년 11월호, p.30 참조) 그리하여 2년뒤인 1979년 7월에는 대체적으로 그의 草稿를 완성시켰다. 당초에 대원칙을 세우고 착수한 것이었지만 막상 위원장이 접수하여 각 위원들이 제출한 草稿를 조절하고 補正하다보니 각 초고간에 균형과 통일이 기해지지 않아 그냥 간단히 손질하여 퍼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原則의 一貫性和 前後의 聯關性和 表現의 統一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시 執筆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위원장이 그 執筆의 일을 맡게 되었다. 그후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겨우 그의 記述篇과 標目올림指示篇만이 완성을 보게 된 것은 순전히 본집필자의 게으름 탓이다.

이 KCR3은 본디 「記述」과 「標目」과 「排列」에 관한 규정을 單卷으로 펴낼 예정이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마무리 지어지지 않아, 우선 급한 대로 완성된 記述篇과 標目올림指示篇을 첫째권으로 펴내고, 나머지 篇들은 그의 완성을 기다려 나중에 권을 달리해서 펴낼 작정이다.

1982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도협주최로 개최되었던 「目錄規則改正을 위한 세미나」는 첫째권으로 나가는 記述篇에 대한 批判과 叱正을 받기 위한 모임이었다. 동 세미나모임에 230여명에 目錄담당 司書와 20여명의 敎授들이 자리를 각각 같이하여 당시 발간된 KCR3의 未定稿本에 담겨진 내용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여 질의를 던져주고 좋은 의견과 개선점을 제시하여 주신 것은 동미정고본을 補正하고 다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펴내지는 정식판이 미정고본에 비해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가 그분들의 덕분이다. 그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해마지 않는다.